

지 상 범 석

“부처님 가르침대로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8)

諸賢頌句 (제현송구) ⑤

若能開口深藏舌 便是安身第一方
약능구심장설설 변시안신제일방
色身健康莫貪眠
색신건강막탐면

잠자못함)
집안일의 정밀한 것과 거친일에는 다
아끼는 바가있다.

만약 능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
면 곧 이것이 몸을 관개하는 제일 방편
이나라, 색신이 건강할때 잠자기를 탐하
지 말라

使時須把脚看
사시수과안정간
莫將恣意却地難
용자지의혹자난
막장자의호호척 용자수지성자난
(고로)때에 맞춰 모름지기 안정을 잡
아 간할지니(화두를 들고 참구할지니)
제멋대로 노는 뜻을 어찌 잡아 던지
려 하지(몰락놓음) 않는가 공부에 마음
내는 자가 모름지기 견성할 자의 어려
움을 알것이다

作務辛勤要向前
작무신근요향전
不見堆坊遠行者 祖師衣鉢是渠傳
불견대방노행자 조사발사거전

諸賢供過要精勤 掃地煎茶莫厭煩
제료공과요정근 소지전다막염반
事來若能常隨切
사중약능상근절

흰색 부지런히 앞을 보고 나갈지이다
노행자(욕조)가 방아질는 것(허리에 돌
매달고 쟁으며 부지런히 마음공부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조사의 옷과 발우가 이렇게 전해졌는
나라

여러 요사체에 공양하는 일을 정성껏
부지런히하고 마당쓸고 차 끓이는 일을
싫어하지 말라
만약 대중을 늘 부지런히 간살하게
섬길 수 있으면

香積野中好用心 五湖龍象在叢林
향적주중호용심 오호용상재총림
隱居望月難辛苦
침성망월수신고

身心方是出家人
신심방시출가인
拳手相交不可為 真寔非是出家兒
권수상교불가위 추호비시출가아

향 쌓인 부덕중에 좋은 마음쓰고 오
호의 용상이 총림중에 있는지(마음길
이 관하여 은갖보배 꺼내쳐라. 천변만화

“대중을 늘 간절하게 섬길 수 있으면
몸과 마음이 바야흐로 출가한 사람”

하는 나뭇이 네마음 가운데 있는지(라)
별보고 달볼에 비록 신고(마음)있어도(마
음 밝혀 계합하기가 비록 어렵고 힘겹
다하)

몸과 마음이 바야흐로 출가한 사람(
나라.
주먹쥐고 팔짱끼어 아무일도 하지 않
으면 추호도 이는 출가한 이가 아니다

須言深果亦深
수신인심과역심
常住分毫不可偷 日生萬善恐難修
상주분호불가유 일생만배공난수

遺人與面須持試 到底誰人不是癡
조인타면수개시 도저요인불사치
出家言行要相應
출가언행요상응

모름지기 믿음의 종자가 깊으면 열매
또한 깊다
상주물을 털끝만큼도 도둑질하지 말
라 날마다 일만결집의 두렵고 어려운
갈증을 낳는다

사람들이 침뱉어 놓은 것을 보게되면
모름지기 훔치고 닦아라 행실 곧게 사
람들을 요익계합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
라

總須離却分明兒 佛地如今掃未休
저루로각분명경 불지여금소미휴
家事精추宜愛惜
가사정추의애식

戰戰兢兢如履薄冰
전전상여리박빙
雖是未除煩惱業 直教去就便如僧
수시미제수여발 직교거취변여승

돼지머리 나귀다리가 분명히 보이니
나 불지에서 이제쯤 쓸어내어 쉬게하지
못하느니라(옛날 어떤이가 절의 재물을
빌려쓰고 갔지 못하고 죽어 환생하며
돼지머리 코끼리코, 나귀다리 모양이라
평생을 두고 질량을 청소케 했어도 다

늘 살얼을 밟는것 같이 두려워하라
비록 이렇게하면 머리와 털을 깎지
않은 사람이라도 바로 그 거취로하여
곧 스님과 같을 것이다.

龍眼

어수선한 세 속의 삶을 벗어나 산사에
머물고 있다보면 자연현상을 통해 많은 것
을 배웁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는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순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
닫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정법의 또다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가운데 일체유심조(一
切唯心造)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불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
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현실에서
실감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마음이 만드는 조화라는
것을 순수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
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무슨 일
이든 마음먹기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한 단면이라
는 것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조화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
게 중요한 마음을 올바르게 닦으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
니다.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을 현실속에서 실감하면서 살아야 하리라

“마음을 올바르게 닦아
마음의 소리 듣다보면
부처님 말씀에
다가가게 됩니다”

고 봅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
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감하는 것처럼 말입
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들의 삶이 함께 어우러
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이스러운
것이 생명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생명
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자연의 이러
한 모습을 온전히 보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다보면 저절로 부처님의 말씀에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자연과 다릅니다. 자
연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
지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무수
히 많은 행동양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
간이 지지르는 이러한 행동들은 스스로 자
신의 업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
라 과보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추구
하는 행복은 자신이 지은 인연에 따른 과
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행복해 질 수도, 불
행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인간이 국한된
문제일 것입니다. 자연에는 이러한 분별이
없으니까요.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운 덕 스 님
천태종 총무원장

- 약 력
· 40년 경복 출신
· 63년 동국대 경
제학과 졸업
· 66년 구인사서
상월조사들은사
로 득도
· 천태종 총회의
원, 총무원 총무
국장·부장 역임
· 80년 이후 총무
원장(현)
· 일본·중국의
천태종과 교류
· 불교방송이사(현)



불행이라는 구별이 없기에 자연은 행복하
다고 즐겨워 하거나 불행하다고 슬퍼하는
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뿐
입니다. 인연의 결과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무분별을 배워
야 합니다.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의 소치이며, 인연에 따른 결과라는 사
실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인연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
것이 없다”고 설하신 바 있습니다. 중생들
은 인연법이 얼마나 엄정하게 나타나지는
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치
는 나쁜 결과를 보고서야 그 원인이 어디
에 있었는지를 더듬어 보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
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연법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왜 자신에게만 이러
한 불행이 닥치느냐고 남을 원망하고 괴로
워 합니다.
자연과 달리 인간의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더라도 불자라
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생동
안 이러한 원망과 괴로움이 떠나지를 않습
니다. 정말 자신에게 닥치는 일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정말 괴로움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방
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분
별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배울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하곤 합
니다. 자신이 남보다 잘난듯하면 자만심을
갖고, 못한 듯 하면 불평하며 괴로워 합니
다. 여기에는 항상 자신과 남이라는 이분법
적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자신과
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자랑하지도, 남보다 못났다고 괴로워하지
도 않으며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전도된 가치관이 범
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가치
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⑦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의 참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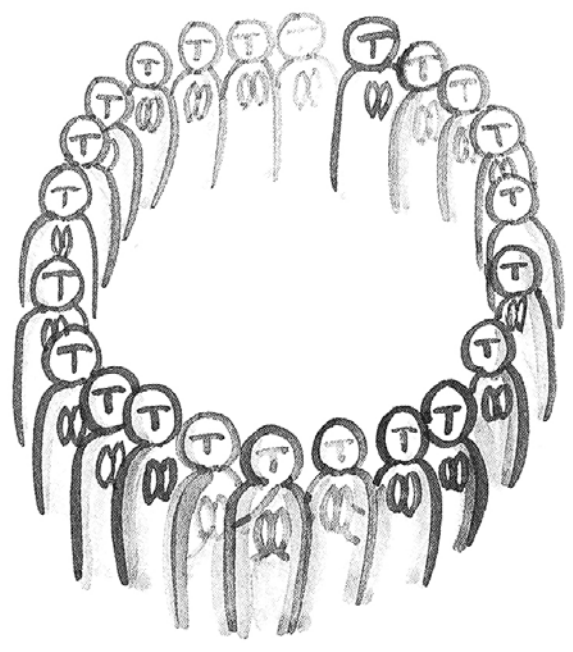
일찍이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깃들어 있
으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셨
다. 불자라면 누구나 이 가르침을 알기
에 우리는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 ‘성
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주고 받는
다. 상대가 누구이든 남녀 노소·출신
성분·승속에 상관 없이 평등과 긍정
의 덕담(德談)을 주고 받는다. 다른 종
교에서는 좀처럼 찾아 보기 어려운 장
면이 아닐 수 없다.

는 것, ‘그대의 불성이나 석가모니 부
처님의 불성이나 역대 조사님의 불성
이나 불성은 다 똑같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아무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스스로 해 보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
사 말인 것이다.

‘성 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이 보편
화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인에 오른
말’처럼 되었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심
오하다.
‘당신은 불성으로 가득 찬 존재이니
한시도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일깨움일 수도 있고
‘당신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언제
든지 부처로 거듭 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보십시오’라는 체근일 수도 있다.
또는 ‘부처는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석 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지
말고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다.
‘나를 믿지 말라’ 함은 예배를 부인한
것이지요.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
라’ 하심은 불성의 평등과 성불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불하십시오’
라는 인사말이야말로 부처님의 가
르침을 되새기는 진실한 말이며, 후학
들에 의해 변조되지 않은 근본의 말인
것이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
떠한가. 자신이 이미 불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우치려 하기보다는 예배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릇은 이미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빈 그릇인 줄 알고 채워 달라! 채워 달
라!를 외치고 있으니 구걸하는 거지 신
세를 자초하고 있음이다. 더욱이 너 자
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당부가 있었
음에도 우리의 신행은 기복 의주로 호
르고 있다.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
을 다만 입에 발린 소리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위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과 동등한 불성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며, 경이로운
소식인 것이다. 도대체 현존의 어떤 종
교가 그와 같은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
던가. 오직 불교뿐이니 이 얼마나 감격
적인 일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고 고통 없는 길을 가게끔
인도하고 있다. 나아가 구걸하는 삶이
아닌 자족(自足)한 삶을 이어나갈 길을

열어 보이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을 배불
리 먹이고도 부족함이 없는 가르침이
다. 우려내고 또 우려내도 진한 국물이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이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게 된다. 언제나 그래야 하
겠지만 불공 기간만이라도 인사말의
참뜻을 되새김하면서 가르침에 또 감
사해야 할 것이다.
불자 여러분, 부디 ‘성불하십시오’

바로 집습니다 *****
본년의 72번 제목 ‘네 말도 옳고 또한 ‘네
말도 옳다’는 ‘네 말도 옳고 또한 ‘네 말도
옳다’의 오식어음기에 바로 집습니다.

협찬: 주인공